

# 익산에서는 아이낳기가 벼슬입니다

임신가정 건강관리비 40만원

출산장려금 최대 1000만원까지

출산가정 15일간 건강관리사 파견

아이돌봄 서비스 840시간으로

익산에서는 아기낳기가 벼슬이다. 익산시가 맞춤형 보육정책을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난임 부부 한방 치료비를

지원하고, 난임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관리비 4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장려금은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며 육아용품 구입비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해 지급한다. 출산가정에는 최대 15일 간 건강관리사를 파견한다.

적용 기준도 확대했다. 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가정에서 소득 기준 조건 없이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 등재 산모이면서 익산시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출산가정이면 된다.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5곳인 다함께 돌봄센터를 2곳 추가해 맞벌이 가정 아동 돌봄과 학습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사랑 콜택시 운영 확대, 유천생태습지 야가 숲 조성 등을 통해 출산 분위기를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며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고창군 황새 산란 돕는 인공 등지탑 3곳 설치

13m 높이... 텃새화 여건 마련

고창군 들녘에 천연기념물 황새가 산란할 수 있는 인공 등지탑이 세워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창군은 황새(천연기념물 199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1급)의 서식지 보호와 산란을 돕기 위한 인공 등지탑 설치 작업을 마무리했다.

군은 등지탑 설치를 위해 올초 충남 예산군 황새공원의 김수경 박사 자문을 받아 황새가 산란할 수 있는 최적지인 아산면 반암리, 부안면 봉암리, 해리면 금평리 3곳을 선정하고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이곳에 13m 높이의 인공등지를 설치했다.

고창군에선 해마다 10여마리 정도의 황새가 발견됐지만 올 1~2월 사이 60여 마리가 목격돼 큰

희망이 됐다.

고창군은 이번 등지탑 설치로 황새가 오랫동안 머물며 자연 번식할 장소를 만들고, 황새 텃새화 여건을 마련했다.

문화재청은 먹이가 풍부하고, 개밭이 적은 고창에서 황새가 월동기를 지나 산란기까지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충분히 황새의 고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황새가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자연번식까지 한다면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인 고창군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이라며 "멸종 위기종 1급인 황새의 보호를 위해 고창군민과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황새 등지탑.

## 고창군 정부양곡 보관창고 수해 안전점검

도정공장도 배수로 정비 등 살펴

고창군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정부양곡 보관창고 116개소, 도정공장 1개소를 대상으로 여름철 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정부관리양곡 처리도급계약을 체결한 보관창고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지붕, 벽체, 출입문, 물받이 등 창고 시설의 파손, 고장, 누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다.

또 안전보관상 필요한 장비의 비치 유무, 수해 방지시설 및 장비 보유의 적정 여부, 정부양곡 안

전 보관을 위한 훈증소독 실시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이 밖에 정부양곡 도정공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도정공장 배수로 정비 여부, 지붕 재질 등의 안전성 여부, 가공 도급계약 시설·위생 기준의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했다.

김용진 고창군 친환경농업팀장은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정비해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해 정부양곡이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남원시 배수지 10곳 비상 연결송수관 설치

남원시가 배수지 송수관로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급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 연결송수관 설치를 완료했다.

시가 관리 중인 배수지는 총 10개소로 대다수가 고지대에 위치해 급수차 및 소방차의 동시 진입이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

올해 1월초에는 역대급 한파로 많은 급수관의 동파가 발생해 수돗물이 누수되며 배수지 수위가 위험단계까지 낮아진 적도 있었다.

시는 이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급수

차 2~3대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도록 대산배수지와 송동배수지에 관경 100mm, 총 36m의 연결송수관 설치사업을 추진했고, 시간당 70t의 물을 담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하반기에도 설치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미설치 배수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지난 6일 이남섭 부군수와 (주)무빙트립 신현오 대표 등 관계자들이 '경량항공기 항공레저스포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 순창군, 무빙트립과 경량항공기 운영 협약

순창군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빙트립' 등 항공레저스포츠와의 접촉을 꾀하고 있다.

무빙트립은 국내 최초로 장애인까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여행상품을 개발해 운영하는 회사다. 무엇보다도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협약에는 항공레저스포츠 운영을 위한 이착륙장 부지사용 협조,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여행객 모집 등에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순창은 기존의 승마, 카누, 서바이벌 등에 이어 경량항공기까지 가능한 레저관광도시의 기반을 갖추게 됐다. 경량항공기의 이착륙지점은 유등체육공원 일원이 될 전망이다.

패러글라이딩에 동력장치를 결합한 경량항공기는 부착된 모터를 통해 일반 비행기처럼 지상에서 바로 떠오르며 상공에서 3시간 정도 비행할 수 있다.

조종사가 동반탑승하고 앉은 상태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장애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 천보비엘에스, 군산에 5000억원 투자 협약

2차전지 소재 생산기업인 천보비엘에스가 군산시 새만금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기로 하고 지난 7일 군산 마라다호텔에서 투자 협약식을 했다.

천보비엘에스는 2026년까지 2단계로 5125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산업단지 17만1000㎡ 부지에 2차전지 소재인 차세대 전해질용 생산할 계획이다.

먼저 1단계로 2023년까지 2185억원이, 이어 2단계로 2940억원이 투입된다. 공장이 정상 가동

되면 총 47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천보비엘에스는 2차전지 소재인 전해질과 전해액 첨가제를 제조하는 천보의 자회사다.

군산공장에서 생산할 전해질용은 수명이 길고 안전성이 높다고 군산시는 설명했다. 군산시는 대규모 투자 유치로 전기자동차 클러스터가 더욱 강화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세얼굴

## "치유·힐링의 도시 조성에 최선 다할 것"

최재용 정읍시 부시장



조했다.

김제 출생으로 풍부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을 듣는 최 부시장은 전주 상산고와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 대학(RUTGERS UNIV)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시정 비전인 정향(井香)누리 향기공화국에 맞춰 치유와 힐링의 도시로 거듭나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최재용 정읍시 부시장은 "유진섭 시장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정읍이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부시장은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고충과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부서 간 유기적으로 협업체제를 구축해 달라"며 "각 부서별 정보공유를 통해 하반기 주요 업무와 현안 사업들이 빈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 공직에 입문, 전북도 식품생명산업과장과 친환경영동과장, 새만금 추진위원단장 등의 주요 보직을 맡았으며 2017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전북도 환경녹지국장과 기획관, 농축수산식품국장을 역임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중부취재본부장 parkks@

#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